

#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 <21> 마군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기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잘 따져 제 몫을 챙겨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 요즘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럴수록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은 더 거칠어지고 있다. 시비가 시비를 낳고 득실이 득실을 따지게 하니, 개인적인 욕망이 한없이 커져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화두 공부의 선택이 아니다. 화두를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쟁쟁아 할 화두가 전부이다. 화두 속에 들어가 화두와 하나가 되어 수미산과도 같이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이 화두를 쟁쟁아야 한다. 차를 마셔도 차를 마시는 줄 알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줄 알지 못하며, 걸어도 걸어가기는 줄 모르고 앉아도 앉아 있는 줄을 몰라야 한다.

### 분별, 울곧은 삶 해치는 마군

### 화두 챙기면 부처님 삶 보장

세상에서 행복해지려면 헛된 욕망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잘못된 욕망을 키울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만 한다. 이것은 울곧은 삶을 해치는 마군(魔軍)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온갖 분별 자체가 중생의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근본 마군이다.

모든 알음알이가 단숨에 사라져서 숨남은 송장이나 진흙으로 만든 인형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야 화두를 떠나 일어나는

화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오로지 화두 챙기는 일만이 마군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부처님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선가귀감> 19장에서 말한다.

생각은 모두 망상이요 마군(魔軍)이 된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工夫 到行不知行 坐不知坐 當此之時 八萬四千魔軍 在六根門頭向候 隨心生起 心若不起 爭如之何

화두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걸어도 걸어가 줄 모르고 앉아도 앉아있는 줄 모르는 경계에 이르게 된다. 이때 팔만사천 마군들이 보는 곳, 듣는 곳, 냄새 맡는 곳, 맛보는 곳, 몸으로 느끼는 곳, 경계를 분별하는 곳 거기에서 조그마한 틈을 엿보고 있다. 마음 쓰는 곳을 따라 온갖 계책을 꾸밀 것이다. 그러나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군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겠느냐?

“마군이란 생사(生死)를 좋아하는 귀신들의 이름이다. 팔만사천 마군이란 팔만사천 번뇌를 말한다. 마(魔)는 본디 근본이 없는 것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잇는 데서 그 썩이 움트는 것이다. 중생은 그 환경을 따라 흘러가므로 별 말 없이 도인인 그 환경을 거스르므로 마가 대든다. 그래서 ‘도가 높으면 마군이 처성하다’고 하는 것이다. 선정에 들어 있는데 송장 메고 온 상주를 보고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도끼로 찍거나, 멧돼지가 나타나자 자신의 마음을 잡아 비틀거나 한다면, 이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헛된 생각들을 바깥에서 저를 치는 마군으로 잘못 알고 그 경계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군이 부리는 온갖

재주도, 칼로 물을 베듯 빛에 바람을 일으키듯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생사(生死)는 범어 samsāra, 혹은 jāti-maraṇa를 말하는데 췌바퀴처럼 돌고 도는 윤회(輪廻)라는 뜻이다. 중생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 때문에, 지옥 아귀 축생 등으로 나고 죽는 삶이 육도에서 되풀이 되어 끊임없이 이어지는 췌바퀴처럼 그 괴로움이 끝이 없다는 것이다. 중생의 되풀이 되는 생사는 끝이 없어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으므로 바다에 비유하여 생사의 바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생의 생사는 괴로움이 가득 찬 세상이므로 생사고해(生苦海)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생사는 바깥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마군이다.

옛날에 참선하는 스님이 깊은 산중에서 좌선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선정(禪定) 속에서 어떤 젊은이가 여자 송장을 메고 찾아와 슬피 울면서 “내가 왜 내 어머니를 죽였느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스님은 이 광경을 마구니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도끼로 내려찍었다. 상주는 놀라서 달아났지만 스님의 넓적다리가 축축해지는데

“마군이란 생사(生死)를 좋아하는 귀신들의 이름이다. 팔만사천 마군이란 팔만사천 번뇌를 말한다. 마(魔)는 본디 근본이 없는 것인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잇는 데서 그 썩이 움트는 것이다. 중생은 그 환경을 따라 흘러가므로 별 말 없이 도인인 그 환경을 거스르므로 마가 대든다. 그래서 ‘도가 높으면 마군이 처성하다’고 하는 것이다. 선정에 들어 있는데 송장 메고 온 상주를 보고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도끼로 찍거나, 멧돼지가 나타나자 자신의 마음을 잡아 비틀거나 한다면, 이는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헛된 생각들을 바깥에서 저를 치는 마군으로 잘못 알고 그 경계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군이 부리는 온갖

벽에 틀이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틀이 생기면 마군이 침범한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 행복동 사람들

남 위한 기도  
배종훈 (bjh4372@hanmail.net)

미자 중간고사 성적 나왔어? 우리 준우는 이번에도 1등이야.

1등? 어디? 반에서? 음... 잘했네.

흥!! 웃겨. 1등이 뭐 더러운가? 괜히 와서 난리야. 예뻐! 기분나쁘네.

자, 여기 보.

시큰둥~

어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속상해서 죽겠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주지요?

쉬운 방법이 있지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네, 맞습니다. 마음은 내 것이라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온전히 지지요.

헛헛헛. 기도하는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생각하세요.

마음의 주인? 마음의 주인이야 자기 자신이죠. 아닌가요?

진정하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 신앙(信仰)과 신행(信行)

많은 재가불자들이 '신앙(信仰)과 신행(信行)'의 차이가 무엇인지 자주 묻습니다. 게다가 최근 불교계에서는 신앙보다 신행이란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지요. 신앙이라는 단어는 '절대자에 무조건 복종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해 타종교 용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교에서는 둘 다 씁니다. 차이가 없는 거지요. 신앙은 '심신(信心)으로 귀의(歸依)하는 것'으로 불교와 인연이 깊은 단어입니다. 신앙은 신신(信心), 심신(信心), 일심정례(一心頂禮), 지심정례(至心頂禮),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 등을 뜻합니다. 또 신경(信敬), 신앙(信向), 신수(信受), 신행(信行) 등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지요.

<대보적경>에서는 "여래에게 공경하고 존중하며 신앙하는 마음을 배로 내었다"는 구절이 있고, <화엄경>에서도 "인연 등의 무리가 함께 신앙했다"는 구절이 등장할 정도입니다. 또 미륵신앙, 관음신앙, 정토신앙, 약사신앙 등의 표현을 절집에서 사용하는 것도 불교와 가까움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6)

###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 2부 42강 종교간의 대화

종교의 역사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우선 창시자가 있어야 한다. 유신을 넘어 정신의 비밀을 본 영웅들이 기원전 6세기에 대거 등장했다. 이때를 기축시대(Axial Age)라 하여 인류사의 빛이 가장 강했던 때로 친다. 공자, 노자, 붓다, 소크라테스, 짜라투스트라는 플라톤의 비유를 들면, 동양의 그림자를 나와 실재를 보았고, 이 지혜를 나누어주기 위해 사람들을 찾았다. 깨달은 자들의 신비한 힘에 이끌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였다. 집단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학습용 교리가 생기고 조직의 규율이 만들어진다. 대중화는 전박화와 풀려났다. 교단이 발전할수록, 창시자의 영감은 그 생생한 깊이와 절실함을 잃고 휴대용으로 단순해지고 경직되기 쉽다.

12세기 유교의 적응과 변신

이때, 종교적 영감은 숨고, 교리와 조직이 더 큰 발언권을 갖는다. 그 억압과 소외가 진전되어 일제적으로 다다르면, 창시자의 영감에 기대, 새로운 종교적 혁신이 일어난다. 여기 성공하면 낡은 종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지만, 실패하면 그 종교는 삶과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한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종교들은 예외 없이 이런 과정을 거쳐 왔다.

유교를 예로 들면, 처음 자신의 뜻을 실현 시켜줄 제후를 찾아 낡은 수레로 떠돌던 공자의 학단이 있다. 진시황의 가혹한 철권통치에 지친 사람들이 인격과 예절의 부드러운 제도를 원했고, 유교는 한대(漢代) 국교의 지위를 얻었다. 그러나 학문으로 전문화되고 고서로 권력화한 유교는 사람들의 종교적 열망을 채워주지 못했다. 기존의 도교, 방사, 사머니즘, 점성술 등 민간신앙에 기원 전후하여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태가 급전했다.

그 후, 위진 남북조의 활발한 역경, 교교와 더불어 불교가 대세를 장악했고, 그 발전의 끝에서 당대의 화려한 선이 꽃피기 시작했다. 이때까지 유교는 별로 숨을 쉬지 못했다. 송대에 들어와 지식인들의 정치의 난맥이 커지고 이민족의 위협에 시달리고, 이윽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자, 지식인들의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이와 더불어 개인주의를 넘어 국가와 공동체를 책임질 새로운 사상을 찾게 되었다. 유교가 새로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예전의 교훈적 설교나 일상의 예티켓으로는 새로운 주도를 기약할 수 없었다. 이윽고 불교의 정치한 형이상학과 심리학, 그리고 노장의 우주적 자연관을 포괄하

면서, 유교의 사회적 책임윤리를 강조한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다. 그것이 주자학이란 것이다. 주자학을 영어로 '새로운 유교(Neo-Confucianism)'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에 이 사상이 수입되어 고려의 불교문화에 대항한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조선 후기, 두 번의 전정을 겪으면서, 유교는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직면했다. 그 변화의 시도들을 통틀어 '실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실학은 실패했고, 유교는 이윽고

유학이 갖고 있던 신학적 입장을 선명히 부각시키면서, 사회개혁을 이끌고, 계급적 족쇄를 타파하려고 노력했다.

그 대면의 결과, 새로운 문명이 탄생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역사적으로 실패했다. 그 길을 가로막은 것은 성스러운 진리의 차이가 아니라 세속적 권력과, 사소한 의례였다. 제수이트는 유교 문명에 대해 적응적이었고, 도미니크는 순수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다. 오랜 전례(典禮) 논쟁의 결과, 교황청이 제사를 우상

기 백년은 암흑기로 남았다. 세계사적 전환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는 치욕도 따지고 보면, 이 종교적 대화의 실패에 연유하고 있다면 지나칠까.

종교는 뜻밖 같은 것

지금 다시 그 여러척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상을 그토록 경계한 종교들이 왜 자신의 종교를 우상화하고, 삶에 족쇄를 채우고, 사회를 폭력적으로 혼란시키

우리는 지금 멈추어 서서 인간이 진정 고리던 삶의 모습이나고 묻는다.

종교는 바로 이 '소외'의 현상에서 의미를 갖는다. 종교는 현대 문명의 위기에 대한 웅혼한 도전이다. "오로지 음식과 의복을 위하여 마음의 등불을 끈, 이 궁핍한 삶을 어떻게 인간화할 것인가?"

이 화두 앞에서 세계의 위대한 종교적 가르침들은 어느 때보다 깊이 연대해야 한다. 여기 이념표를 고정해서는 안 된다. 삶의 미와 영혼의 각성에 도움이 되는 장치라면 무엇이든 쓰고, 쓰고 난 다음에는 버려라!

불교가 이 점에서 특히 유연하고 적응적이다. 불교는 종교를 도그마 화하고, 진리를 뜻밖처럼 짚어지고 가는 여러척을 무언보다 경계한다. <금강경> 6장은 말한다. "마음의 소외(心取相)도 극복해야 하지만, 진리를 도그마 화(取法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금강경>은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권력과 우상, 지배와 억압을 타파하기 위한 망치이다.

자신의 종교를 우상화하지 않아야 비로소 종교 간의 대화 가능하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그렇지 않고 우상에 빠져, 일방적 훈계와 배타적 아집으로 일관할 때, 21세기 소외와 니힐리즘에 맞설 영적 전통의 유대와 결집을 기약할 수 없다.

나는 궁극적으로 종교 없는 세상을 원한다. 종교가 있고, 이름이 없는 그런 종교를 원한다. 아니, 지금까지 진정한 종교에는 본시 이름이 없었다. <금강경>이 말한다. "그래서 여래가 말한다. 너희 비구들이여, 내가 말하는 설법이 뜻밖 같음을 알아라. 그러나 진리를 버리고 내려놓을 줄을 알라... 진리조차 내려놓아야 하거늘, 하물며 비진리가 물어 무엇 하겠느냐." 以是義說, 如來常說, 汝等比丘, 如我說法, 如筏喻者, 法尚應捨, 何況非法.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름' 없는 종교를 위하여

승배로 단정하고, 상제(上帝)를 하는님의 이름으로 쓰지 못하게 하자, 청(淸) 왕조는 선교사들을 축출하고 조선은 기독교를 유교 문명의 파괴자로 단정했다.

조선에는 사육과 순교의 피바람이 불었고, 서양의 과학과 기술까지 금기시되었다. 문명 간 대화를 통한 조선의 개혁은 이로써 좌절되었고, 이어 정치적 숙청이 잇따랐다. 실학의 개혁 운동이 좌절되었고, 이어 19세기

는지 나는 알다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내 속의 무지와 어둠이며, 그 위에 서 있는 현대문명의 세속성과 물질성이지, 타 종교의 교리나 조직, 신도수가 아니다.

돌켜져 보자. '위대한 약속'은 지켜졌는가.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원하는 대로 무슨 욕망이든 구현시켜주겠다는 그 장미빛 약속은 지켜졌는가.